정읍시, 이동약자 실시간 안전서비스

전동보장구에 특수 센서 장착 넘어짐 · 급가속 등 돌발상황 통합관제센터서 보호자에 통보 119 신고 등 골든타임 확보

정읍시가 최첨단 사물인터넷(IoT) 기술을 활용 해 이동약자들의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에 나섰다.

정읍시는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을 위한 '스마트 이동약자 안전서비스 구축 사업'을 시작한다고 29 일 밝혔다.

이는 전동보장구에 특수 센서가 장착돼 이용 중 넘어짐이나 급가속, 급정거 등 돌발상황이 감지되 면 즉각적으로 정읍시 통합관제센터에 상황을 자 동으로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 서비스다.

관제센터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에 등록 된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통보하고, 필요시 119 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또 축적된 전동보장구의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자주 사고가 일어나는 지역의 도로환경 개선 및 안 전대책 확보 등에도 적극 활용된다.

이 서비스는 사물인터넷 인프라 구축과 함께 먼 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200명에게



정읍시가 전동보장구 이용 취약계층 200명을 대상으로 특수 센서가 장착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에 대한 실시간 안전망을 가동한다. 정비사가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를 수리하고 있는 모습.

시는 향후 서비스 대상을 점차 확대해 노약자.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함께 다양한 안전·환경·복지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.

시는 노약자, 장애인 등의 이동권 제한을 방지 하고 사고로 인한 신체적·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이학수 정읍시장은 "노인과 장애인들이 걱정 없 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 을 지속해서 발굴·추진할 계획"이라고 말했다.

/정읍=박기섭 기자·전북취재본부장 parkks@

지리적표시제 등록 '고창수박' 수확 본격 시작

지리적표시제 등록상표 '고창수박'의 수확이 시 작됐다.

고창군은 지난 27일 성내면 이후극씨 농가에서 '지리적표시제' 마크를 단 수박의 수확이 시작됐

'고창수박'은 지난해 9월 20일 국가 지리적표시 제 116호로 등록되며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를 인 정받았다.

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리적표시제도 에 따라 고창에서 생산된 일정 기준 이상의 수박만 '고창수박'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. 다른 지역에 서는 함부로 같은 이름을 붙일 수 없다.

고창군 관계자는 "고창수박 명품화 전략을 체계 적으로 추진해 전국 최고의 수박 브랜드 명성을 유 지하겠다"라고 말했다.

/고창=김형조 기자 khj@kwangju.co.kr



지난 27일 심덕섭(왼쪽 세번째) 고창군수와 조민규(왼쪽 네번째) 고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, 이 미정(왼쪽 일곱번째) 농협고창군지부장 등이 성내면 수박농가를 찾아 올해 첫 고창수박의 수확을 돕고 〈고창군 제공〉

남원시 '축산악취 개선' 국비 공모 도전

남원시가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쾌 적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'축산악취개선사 업' 국비 공모에 나섰다.

재활용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 한 결과 총 30개소에 대한 지원 수요를 파악됐고, 시는 이를 반영해 20억3100만원 규모의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모를 신청했다.

이 사업 외에도 시는 ▲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남원시에 따르면 지역 내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사업(15억원) ▲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 화 사업(10억원) 등 2건의 공모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. 총 45억원 규모의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동

시는 올해도 공모를 통해 11억4000만원의 국비 를 확보한 바 있다.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49억원을 축산악취개선에 투입했다.

남원시 관계자는 "축산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적지 않다"며 "주민 악취피해를 막고 건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

/남원=백선 기자 bs8787@kwangju.co.kr

남원시, 지자체 합동평가 8년 연속 최우수

국가 주요시책 등 성과 평가…68개 중 63개 국정지표 달성

남원시가 지난해 실적기준 '2025년 지자체 합동 평가'에서 도내 14개 시군 중 종합 1위를 차지했다. 남원시는 2018년부터 8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.

매년 실시되는 지자체 합동평가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대상 종합평가다.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수행한 국가위임사무, 국가 보조사업, 국가 주요시책 등의 추진 성과를 평가한다.

행정안전부가 17개 광역시·도를, 전북자치도가 14개 시군을 평가하며 일자리, 안전, 보건, 복지 등 시민 삶과 밀접한 행정 전 분야를 살핀다.

시는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68개 지표 정량평 가 분야에서 취업지원 서비스 달성률과 복지사각 지대 발굴 지원 및 수급자 사후관리,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실적, 주민 1인당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 수거량 등 63개 국정지표를 달성했다.

또 우수사례 중심으로 평가한 15개 지표 정성평 가 분야에서 시부 1위에 선정됐다.

시는 이번 평가를 위해 부단체장 주재 보고회 개 최 등을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 련하는 등 실적 향상에 노력을 기울였다.

/남원=백선 기자 bs8787@kwangju.co.kr

정읍시,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

친환경쌀 가공·공급업체 등 총 13곳 영업장 위생 상태 등

정읍시가 학생들 에게안전하고위생 적인급식을제공하 기 위해 급식 식재 료공급업체에대한 합동점검에 나섰

정읍시는매년상 ·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학교급식식재 료 가공·공급업체 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실시하고있 으며, 올해 상반기 에도 관련 부서와

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이 진행할 예정이

이번 점검은 시 학교급식 담당팀과 위생팀을 비 롯해 정읍교육지원청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, 학 교 영양교사 등이 참여한다.

점검 대상은 친환경쌀 가공·공급업체 1곳과 지 역산 가공품 공급업체 12곳 등 총 13개소이다.

주요 점검 항목은 ▲친환경쌀 인증표시 적정 여 부 ▲영업장 및 종사자의 위생 상태 ▲제품 표시사 항 ▲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 및 사용 여부 등



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. 학교급식 조리실. 〈정읍시 제공〉

정읍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유치원, 어 린이집, 초·중·고등학교 등 총 104곳 9787명의 학 생에게 지역산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.

정읍시 관계자는 "이번 점검을 통해 공급업체의 위생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급식의 품질 향 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"며 "앞으로도 학생 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급식 환경 조 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/정읍=박기섭 기자·전북취재본부장 parkks@

청소년 43명, 고창 매력 전세계에 알린다

청소년 외교관 위촉…온라인 채팅・홍보 할동 등

돼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으로 지역 홍보에 나섰다.

고창군은 지난 28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'청 소년외교관 위촉식'을 열고 청소년 외교관으로 위 촉된 고창고, 고창북고, 전북인공지능고 재학생 4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.

청소년외교관들은 온라인 채팅, 이메일 주고받 기, 고창군 홍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창 이 가진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된다.

일본 시만토정, 말레이시아 미리시)간의 우호도 다질 예정이다.

심덕섭 고창군수는 "청소년외교관 프로그램이 고창의 청소년들이 세계와 소통하며 글로벌 역량 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"며 "앞으로 도 지역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교 류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"고 말했 /고창=김형조 기자 khj@kwangju.co.kr

